

# 무용 전공자의 경력에 따른 무용 품성과 정서의 관계

이동숙\* 세종대학교

본 연구는 무용 전공자의 경력에 따른 무용 품성이 무용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에 215명의 한국무용, 발레 및 현대무용 전공 연구대상을 표집 하여, 무용 품성과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여기에서 확보된 자료를 기초로 다변량 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 및 상관분석을 통해 결과를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10년 이상의 무용 경력을 가진 대상이 인내와 창의성 및 감수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무용 정서 지능 요인 중 자기정서인식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년 이상의 높은 경력 집단은 인내와 감수성이 자기정서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에서 10년 사이의 경력을 가진 집단은 정서활용과 정서표현에 인내와 창의성이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집단은 타인정서인식에서 인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력에 따라 무용 품성이 무용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을 통해 인간의 품성을 발달시킬 수 있고, 이에 정서적 활용 능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주요어 : 무용전공자, 경력, 무용품성, 무용정서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의 다변화되는 사회적 특성에 따라 야기되는 학교폭력과 게임 및 인터넷 중독 등의 사회현상들 속에서 품성의 역할이 다시금 부각 되고 있다. 이에 교육관련 정부기관들은 품성 교육의 강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신체 활동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기초에는 기존의 품성이 수학이나 국어 등 교과 교육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측면이 내재되어 있다(엄혁주, 최영준, 문익수, 2013; 강선보 외, 2008; 이현옥, 2005). 따라서 품성에 대한 관심은 교육학 분야를 넘어 다양한 사회-심리학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 개인의 행동이 성숙한 내면화 과정을 거쳐 보다 구체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어져 개인은 물론 타인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품성이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품성은 영어로는 'Character'로 사용된다. 품성(Character)은 학문마다 조금씩 다른 언어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교육학에서는 인격이나 인성으로, 심리학에서 지적, 의지적 측면을 강조하는 보다 안정적 측면의 성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품성으로 설명하고 있다(이선영, 2014). 사전적 의미로는 품격과 성질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품성은 인격을 이루는 여러 가지 덕목들을 의미하며, 이것은 인성(人性, Human nature)안에 품성의 여러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미선, 2015). 따라서 인성과 품성의 경계는 학자들마다 일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차별화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본래 품성은 단순히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단 기간 내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

\* 세종대학교 미래교육원 주임교수, anatis1@hanmail.net

라 자신의 타고난 소양을 바탕으로 사회성, 유연성 등과 같은 성격적 측면과 배려, 정직과 같은 도덕적 측면을 부단히 갈고 닦으면서 이를 내면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소수연, 2015; 금명자 등, 2002). 이렇듯 인성이나 품성의 의미에는 우리가 지향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바람직한 성품이 담겨져 있으며 가치 함축적인 의미가 있으며, 인성이나 품성은 선천적인 면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학습 될 수 있으며, 그 시대의 사회적인 현상에 의해 변화한다고 본다(소수연, 성벼리, 문소희, 2015; 홍석영, 2013). 이와 관련하여 이선영(2014)은 예술 수행은 창의적인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결과적으로 창의적인 산출물은 개인은 물론 타인의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무용과 같은 예술수행으로 형성되는 것은 성격보다는 품성으로 지칭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견해라고 설명하면서, 무용 교육 및 학습에 따른 품성의 발달과 측정 및 영향력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처럼 무용과 같은 신체 움직임을 통해 파생된 품성의 발달적 견해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이는 학교폭력 완화 방안으로서의 품성(고문수, 2013)과 스포츠 품성과 리더십의 관계(민홍근, 2019) 등의 연구에서 품성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검증한 바 있다. 또한 무용 분야에서는 예술적 관점에서 품성의 측정과 발달 모형을 연구한 이선영(2014)등의 연구가 있다. 이처럼 품성과 관련된 연구들은 개인의 행동 촉발의 원인을 동기의 관점으로 보기보다 성격적 관점으로 보고 품성을 통해 변화하는 다른 심리적 요인 및 사회적 요인의 영향력을 알아봄으로써 품성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Seligman(2002)과 박리나(2014)는 품성을 이해하기 위한 방안으로 24가지 품성강점(character strengths)을 선정하고 이를 덕의 하위개념으로 분류하여 'VIA 분류체계(Classification of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를 제시하였다. 즉, 추상적인 개념의 품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성(character)을 계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품성 계발을 통해 진정한 행복, 즉 웰빙(well-being)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관점은 실제 품성의 강화가 어쩌면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개인의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긍정적 품성이 어떠한 과정을 매개하여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은 품성과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요인 중 정서의 관련성은 최근에 들어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덕목(2013)은 품성이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만족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구조적 과정을 제시하면서 품성과 정서의 중요한 매개적 관점을 설명하였으며, 이미숙(2008)은 품성의 개발이 정서지능의 활용과 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무용 상황에서 품성을 연구한 이선영(2014)은 무용의 특성을 아우르는 예술적 품성이라는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이러한 예술적 품성이 무용 정서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품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의 활용과 표현 및 수용성과 같은 개인 지각의 요인으로 정서 지능(Emotion Intelligence)역할이 최근에 들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서 지능은 정서를 이성과 감성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주목받는 요인이며, 지금까지의 정서의 개념들과는 달리 정서 지능의 고유한 이론적 특징은 사고와 정서가 '지능'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연결된다고 보는 관점이다(이동숙, 2020; 신유진, 2012; 박소영, 2010). 즉 정서를 지능으로서 정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인식하는지에 따라 개인의 목표 및 동기적 행동 등 다양한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정서 지능의 중요성을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용 학습이나 공연에서 매우 중요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정서 지능은 무용 상황에서 자기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활용하며, 이를 통해 타인의 정서를 인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사회지능으로서의 정서적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동숙, 최현주, 2018; Goleman, 1995). 이러한 정서 지능은 무용 환경에서 다수 연구된 바 있으며, 그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먼저 아동의 무용 참여가 정서 지능 발달에 기여한다는 연구(김화숙, 2010)가 있으며, 무용 전공자들의 정

서 지능이 심리적 안녕감(오보선, 유진, 2011)에 영향을 미치고, 무용을 통한 자아실현(허진영, 권형수, 2009)과 무용 몰입(류가연, 2013)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이동숙, 2020). 따라서 무용을 통해 품성을 발달시키고, 품성의 발달이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무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강화와 청소년의 신체활동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품성과 정서의 관계를 광의적으로 보면 품성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는 인과적 관점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즉 인성이나 품성을 통해 인간의 정서를 조절하거나 인성과 품성의 특성이 정서를 어떻게 표현하거나 조절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품성과 정서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관점 중 서미숙(2006)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필요한 이타적 행동의 근간을 품성으로 통해 설명하고, 이러한 품성 수준에 따라 정서를 느끼는데 차이가 있다고 전제한다. 즉 타인을 공감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의 기분과 감정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잘 위로해주는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좋은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타인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해 도울 줄 아는 이타적 행동의 근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본 연구의 필요성을 잘 대변해준다. 무용이 가진 예술적 감성과 특성들은 개인의 품성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지능적 측면의 정서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엄혁주(2012)와 엄혁주, 최영준, 문익수(2013) 및 오경란(2020)의 연구에 따르면 품성은 개인이 신체활동이나 어떤 과제에 대한 학습의 발달적 영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실제 무용이라는 예외와 예술적 측면의 무용 학습 측면에서 무용 전공 경력에 따라 품성의 발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이는 무용이 품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무용의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품성의 발달이 무용의 예술적 측면에서의 정서적 활용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경력에 따라 품성과 정서 지능의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무용 학습의 효과를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무용을 통한 개인의 성장과 기능의 발현이 강화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무용이 사람들과의 공감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 예술의 측면으로 본다면 본 연구는 무용 학습의 기간에 따라 품성과 정서 지능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품성이 발달적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엄혁주와 성창훈(2012)의 연구와 이선영(2014)의 연구를 기초로 수행되었다. 품성의 이론적 관점은 개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발달 즉, 과제에 대한 능력수준에 의해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무용의 능력을 비교적 예측할 수 있는 경력에 따라 품성과 이를 통해 변화 될 수 있는 정서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무용전공자들의 경력에 따라 품성과 정서 지능의 차이를 알아보고 품성이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품성 발달과 정서의 활용 능력의 긍정적 효과를 알아보는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2019년과 2020년 현재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대상이었다. 연구 참여자는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을 전공하고 있으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에 적합한 목적표집(purposeful sampling)을 사용하여 표집 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전공			Total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경력	10년 이상	65	10	16	91
	5년-10년	37	12	39	88
	5년 미만	13	0	23	36
전체	115	22	78	215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10년 이상 무용전공생은 91명이었고, 5년에서 10년 경력은 88명 5년 미만의 경력집단은 36명이었다. 또한 한국무용은 115명이었으며, 현대무용이 22명, 발레가 78명으로 총 21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 2. 측정도구

### 1) 무용 품성의 측정

무용전공자들이 무용 품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선영(2014)이 개발한 예술적 무용 품성 척도(Scale of Artistic Character : SAC)를 활용하였다. 예술적 무용 품성 척도는 무용을 통해 체득될 수 있는 무용 전공자 개인의 인내, 용기, 과제집중, 창의성, 감수성의 5개요인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반응(Likert) 방식의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도록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무용 품성 척도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축요인분석(principle axis factoring)과 사각회전(oblique rotation)방식의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무용 품성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결과 고유치 값 1이상에서 4개요인 15 문항으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부하량은 .43~.85로 나타났다. 또한 4개 요인의 총 분산은 66.15%로 나타나서

표 2. 무용 품성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번호	무용 품성 요인과 요인 부하치			
	인내	창의성	용기	감수성
S3	.859	-.056	-.018	.150
S2	.796	.022	-.028	.036
S5	.742	.058	.033	.077
S1	.708	.117	.020	-.107
S4	.652	-.055	.184	-.079
S14	-.025	.770	-.027	-.088
S15	.020	.743	-.043	-.103
S13	.000	.673	.144	.031
S16	.074	.544	.052	.194
S8	-.097	.296	.589	.061
S9	.025	.084	.483	.345
S7	.087	.328	.439	.008
S18	.126	-.064	.013	.810
S17	.073	.118	-.093	.762
S19	.025	.059	.102	.625
설명변량	45.217	9.022	6.447	5.467
누적변량	45.217	54.240	60.687	66.154
고유치	9.948	1.985	1.418	1.203
신뢰계수	.912	.858	.776	.862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90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2602.851 Sig.=.000

4개요인 15문항은 50%이상의 분산을 나타냈다. 이러한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제외된 요인은 과제집중 요인이었으며, 본연구의 대상은 과제집중은 품성으로 지각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요인분석에서 제외된 문항은 문항이 한 요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요인의 신뢰도를 감소시키거나 요인부하량이 .3이하로 나타나 삭제되었다. 4개 요인에 포함된 문항 간 내적 일관성 측정을 위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각각 .77에서 .91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도출된 문항의 총 신뢰계수는 .886로 나타났다.

## 2) 무용 정서 지능의 측정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들의 무용 정서 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진과 오보선(2009)이 개발한 무용 정서 지능 척도(Dance Emotional Intelligence Scale)를 사용하였다. 무용 정서 지능 척도는 무용 상황에 정서의 활용과 인식, 표현 등을 알아보는 척도로서 5점 반응(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요인은 자기 정서 인식, 타인 정서 인식, 정서 표현, 정서 활용, 정서 조절의 5요인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정서 지능 척도가 본 연구에서도 타당하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무용 품성 척도와 동일하게 주축요인분석과 사각회전 방식의 직접 오블리민을 활용하여 타당성을 알아보았다. 이에 따른 타당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 무용 정서 지능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번호	무용 정서 지능 요인과 요인 부하치				
	자기정서인식	정서조절	정서활용	정서표현	타인정서인식
C2	.950	-.011	.025	-.048	-.028
C1	.871	.012	-.057	.013	-.061
C3	.716	.044	.001	-.071	.149
C15	-.078	.892	.009	-.120	-.060
C16	.067	.851	.033	.005	.000
C14	.028	.739	-.090	.052	.062
C11	-.066	.002	.958	.034	-.038
C12	-.013	.098	.682	-.037	.045
C10	.136	-.161	.644	-.136	.078
C13	.112	.139	.518	-.019	.071
C9	.012	.011	-.120	.871	-.145
C8	.052	.066	.039	.773	.137
C7	.061	.041	-.001	.629	.208
C5	-.053	.026	-.068	.006	.878
C6	.017	-.015	-.012	-.190	.746
C4	.270	.039	-.088	.074	.487
설명변량	43.875	12.663	8.097	7.587	6.463
누적변량	43.875	56.538	64.636	72.223	78.685
고유치	7.020	2.026	1.296	1.214	1.034
신뢰계수	.911	.877	.847	.870	.836

Kaiser-Meyer-Olkin Measure of Sampling Adequacy=.857

Bartlett's Test of Sphericity=1988.243, Sig.=.000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무용 정서 지능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고유치 1이상에서 5개요인 16문항이 탐색되었다. 여기서 탐색된 요인은 자기정서인식, 정서조절, 정서활용, 정서표현, 타인정서인식의 5개 요인이었다. 각 요인부하량은 .48에서 .95까지 나타났으며, 5개 요인의 누적 설명변량은 78.685%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에서 제외된 1문항은 요인부하량의 감소로 요인분석에서 제외되었다. 5개 요인에 포함된 문항 간 내적 일관성 측정을 위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각각 .83에서 .91로 총 .854의 알파계수를 나타내어 무용 정서 지능 척도의 타당도는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 3.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는 SPSS Ver.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연구 목적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 품성 척도와 무용 정서 지능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축요인분석(principal factor analysis)과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min) 회전방식을 활용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였으며, 탐색된 하위문항들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Ch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무용 전공 경력에 따른 무용 품성과 무용 정서 지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분석(Post-Hoc Test: Scheffe 검증 방법 활용)을 실시하여 무용 전공 경력에 따른 무용 품성과 무용 정서 지능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셋째, 무용 정서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무용 품성 요인을 경력에 따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무용 품성과 무용 정서 지능 요인의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넷째, 무용 품성이 무용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이 경력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하여 무용 전공 경력 집단을 차례로 선택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 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무용 전공 경력에 따른 무용 품성의 차이 검증

무용 품성이 무용 전공 경력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무용 전공 경력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하고 무용 품성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선정하는 다변량 분산분석(MANOVA)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각각의 배경변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초 통계치를 산출하였으며, 사후분석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다변량 분산분석결과와 기초 통계치를 통합적으로 제시하면 아래 <표 4>와 같다.

<표 4>에 경력에 따른 무용 품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인내, 창의성, 감수성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표 4. 무용 전공 경력에 따른 무용 품성의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무용 품성	경력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증
인내	10년 이상	4.16	.59	7.229	.001	10년 이상>5년~10년=5년 미만
	5년-10년	3.77	.76			
	5년 미만	3.80	.89			
	전체	3.91	.75			
창의성	10년 이상	3.95	.75	4.538	.012	10년 이상>5년 미만
	5년-10년	3.75	.78			
	5년 미만	3.45	.99			
	전체	3.77	.82			
용기	10년 이상	3.59	.84	.521	.595	ns
	5년-10년	3.56	.75			
	5년 미만	3.41	.93			
	전체	3.54	.82			
감수성	10년 이상	4.21	.69	5.023	.007	10년 이상>5년 미만
	5년-10년	3.93	.73			
	5년 미만	3.75	1.08			
	전체	3.99	.81			

Wilks의 람다 : .891,  $P < .05$

ns: non significant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차이를 사후검증을 통해 알아보면, 인내에서는 10년 이상의 무용 경력을 갖고 있는 고 경력 집단이 5년에서 10년 사이와 5년 미만의 경력 집단에 비하여 높은 인내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창의성에서는 10년 이상의 집단이 5년 미만의 집단에 비하여 높은 창의력 수준을 나타냈다. 또한 감수성 요인에서는 10년 이상의 집단이 5년 미만의 집단에 비하여 높은 감수성 수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 전공 경력이 증가할수록 무용 품성이 발달한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 2. 무용 전공 경력에 따른 무용 정서 지능의 차이 검증

무용 정서 지능이 무용 전공 경력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무용 전공 경력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하고 무용 정서 지능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선정하는 다변량 분산분석(MANOVA)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각각의 무용 정서 지능에 대한 무용 전공 경력의 기초 통계치를 산출하였으며,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와 기초 통계치를 통합적으로 제시하면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무용 전공 경력에 따른 무용 정서 지능의 다변량 분산분석 결과

무용 정서 지능	경력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사후검증
자기정서인식	15년 이상	3.82	.85	4.791	.009	10년 이상>5년-10년
	5년-10년	3.67	.85			
	5년 미만	3.28	.95			
	전체	3.66	.89			
정서조절	15년 이상	3.20	.74	.289	.750	ns
	5년-10년	3.29	.84			
	5년 미만	3.28	.86			
	전체	3.25	.80			
정서활용	15년 이상	3.76	.68	1.620	.200	ns
	5년-10년	3.61	.82			
	5년 미만	3.52	.82			
	전체	3.66	.77			
정서표현	15년 이상	3.38	.74	.063	.939	ns
	5년-10년	3.35	1.00			
	5년 미만	3.33	.92			
	전체	3.36	.88			
타인정서인식	15년 이상	3.33	.80	1.183	.308	ns
	5년-10년	3.42	.85			
	5년 미만	3.17	.84			
	전체	3.34	.83			

Wilks의 람다 : .915,  $F(,05$

ns: non significant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무용 전공 경력에 따른 무용 정서 지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기정서 인식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정서조절과 정서활용 등 기타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를 사후검증을 통해 알아보면, 10년 이상의 높은 경력을 보인 집단이 5년에서 10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집단에 비하여 높은 자기정서를 인식하는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 3. 무용 품성과 무용 정서 지능의 상관관계 분석

무용 전공 경력에 따라 무용 품성이 무용 정서 지능의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이전에

각각의 무용 품성의 하위 요인과 무용 정서 지능의 하위요인의 관계를 일차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무용 품성과 무용 정서 지능의 상관분석 결과

요인	인내	창의성	용기	감수성	자기정서인식	정서조절	정서활용	정서표현	타인정서인식
인내	1								
창의성	.475**	1							
용기	.477**	.562**	1						
감수성	.577**	.607**	.485**	1					
자기정서인식	.215**	.198**	.083	.124	1				
정서조절	.029	-.018	-.009	-.045	.248**	1			
정서활용	.141*	.073	-.019	.082	.522**	.359**	1		
정서표현	.105	.154*	.066	.137*	.506**	.379**	.527**	1	
타인정서인식	.154*	.143*	.091	.151*	.579**	.252**	.540**	.496**	1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무용 품성과 무용 정서 지능의 상관 분석 결과 무용 품성의 인내는 자기정서 인식( $r=.215$ )과 정서활용( $r=.141$ ) 및 타인정서인식( $r=.154$ )과 긍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창의성은 자기정서 인식( $r=.198$ )과 정서표현( $r=.154$ ) 및 타인정서인식( $r=.143$ )과 긍정적 상관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로 용기는 무용 정서 지능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감수성은 정서표현( $r=.137$ )과 타인정서인식( $r=.151$ )과 긍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분석은 무용 품성의 하위 요인과 무용 정서 지능의 하위 요인은 다차원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 4. 무용 전공 경력에 따라 무용 품성이 무용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

무용 품성과 무용 정서 지능의 상관관계 분석을 기초로 무용 전공 경력에 따라 무용 품성이 무용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무용 품성을 예언변수(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무용 정서 지능을 준거변수(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15년 이상의 경력 집단에서는 자기정서인식의 영향을 미치는 품성 요인은 창의성과

표 7. 무용 경력 집단에 따른 무용 품성과 무용 정서 지능의 다중회귀분석결과

경력집단	준거변인	독립변인	R <sup>2</sup>	R <sup>2</sup> C	Beta	F
15년 이상	자기정서인식	창의성	.111	.111	.637	11.065***
		감수성	.159	.049	.376	8.348***
		인내	.162	.002	.068	5.586
		용기	.164	.002	.061	4.208
5년~10년	정서활용	인내	.047	.047	.216	4.195***
		용기	.048	.001	.57	2.152
		창의성	.048	.000	.016	1.423
		감수성	.048	.000	.012	.986
5년 미만	정서표현	창의성	.045	.045	.213	4.075*
		감수성	.056	.011	.121	2.542
		용기	.056	.000	.008	1.676
		인내	.056	.000	.002	1.242
5년 미만	타인정서인식	인내	.121	.121	.348	4.692***
		창의성	.164	.043	.343	3.248
		용기	.210	.046	.261	2.840
		감수성	.211	.000	.024	2.067



감수성으로 나타났다. 즉 창의성은 자기정서인식에 11.1%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수성은 4.9%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집단에서는 정서활용에 인내 요인이 4.7%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의성은 정서 표현에 4.5%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5년 미만의 경력을 보인 집단은 인내가 타인정서인식에 12.1%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무용 전공 경력에 따라 무용 품성이 무용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과 요인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IV. 논 의

품성이란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인격적-행동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보편적으로 품성은 개인에게 내재된 인격과 인성의 총체이자 개인의 행동에 대한 예측과 방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일찍이 품성에 관한 연구는 인간성 상실의 아노미 현상을 막기 위해(성창훈, 2006) 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할 목적으로 주로 윤리학과 교육학에서 행해져왔으나, 최근 긍정적 심리학에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성격적 강점(Peterson & Seligman, 2004)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이 내재된 개념이나 윤리적 성향만이 아닌 보다 광의적인 의미로 보고 있다. 품성은 사람됨을 나타내는 말로써 '상황이나 현상이 사람에게 체현되어 굳어진 기질과 습성'으로 개인의 주관과 목표에 따라 나타나고, 사람의 우수한 됴됨이와 바탕 및 성질 및 성격을 나타내는 어휘로써 교육과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개인의 가치관이 형성됨에 따라 후천적으로 개발되는 특징이 있다(이선영, 2014; 오경란, 2020, 재인용).

따라서 지속적인 품성 계발은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동시에 긍정적인 심리 요인의 확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많은 연구들에 의해 지지되어 왔다. 흔히 품성 계발이 다른 심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박성민(2009), 이정희(2008), 엄혁주(2012) 등은 품성의 과정과 방향성이 매우 견고한 긍정적 심리적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최근에 들어 급격하게 산업화되고 가고 있는 사회 현상에 따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사회현상에 대응하는 품성에 대한 주목은 많은 연구들에 영향을 미쳤다. 결국 이러한 품성의 결정은 많은 문화적-개인적-환경적 특성이 매개하게 되는데 이중 무용이 품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본 연구를 시작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용의 전공 학습 측면에서 무용 전공의 경력 수준에 따라 무용 품성과 무용 정서 지능의 차이를 알아보고, 무용 품성이 경력에 따라 무용 정서 지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이에 215명의 무용 전공자들을 표집 하여 무용 상황에 적합한 무용 품성과 무용 정서 지능 척도를 배부하여 작성토록 하고 회수하여 자료 분석 절차에 기초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무용 경력에 따라 무용 품성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무용 경력이 증가할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 품성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무용 경력이 증가할수록 인내와 감수성 및 창의성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특히 10년 이상의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전공자의 품성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속적인 신체활동이 품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엄혁주(2012)와 김숙자(2007)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특히 무용과 관련된 품성을 연구한 이선영(2015)은 무용이 품성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품성과 유사한 맥락으로 연구되는 인성과 관련된 조은지(2017)의 연구에서도 무용이 개인의 인격과 성품 및 품성을 결정하는 인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결과적으로 공연희(2002)의 연구에 기초할 때 무용의 학습이 무용 전공자들의 사회성을 강화시키고 보다 엄격한 절제와 자신에 대한 통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시각을 공유하려는 감성능력의 배양이 품성의 발달을 갖고 올수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상위에 제시된 무용 관련 연구에

서 발견된 사실이다.

또한 이러한 품성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무용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무용 정서 지능이 무용 전공 경력에 따라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한 분석 결과 품성과는 비교적 명확한 결과는 아니지만 자기정서를 인식하는 요인에서 경력 별 차이가 나타났다. 높은 경력을 가진 집단이 자기정서를 인식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의 정서지능이 무용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 선행연구로는 무용을 경험한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정서 지능이 높아 사회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연구(배은주, 유병인, 이경훈, 2000; 정희자, 2000)가 있고, 무용과 같은 신체 움직임이 사회성, 인지발달, 정서발달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영선, 2001)가 진행된바 있다(오보선, 유진, 2011). 정서지능이 무용수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무용수의 정서지능과 무용 능력간의 상관관계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이동숙, 최현주, 2019; 오보선, 유진, 2011).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의 경력에 따른 정서지능의 차이를 연구한 이경님(2019)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으며, 무용 경력에 따라 정서지능의 차이를 보고한 이서훈(200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많은 정서 요인 중 자기정서인식에서만 경력에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실제로 경력에 다른 정서지능의 활용과 수준은 아직 명확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하기에는 성급한 측면이 있다. 이는 경력을 5년 단위로 설정한 본 연구의 기준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고, 또한 무용 전공 경력이 정서 지능의 차이를 예측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력의 급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무용 품성이 무용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경력에 따라 알아본 결과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이러한 분석 가정은 무용교육이 여고생의 사회성을 함양하고 이러한 사회성이 정서 지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이서훈(2009)의 연구를 일부 지지한다고 판단되며, 이미숙(2008)은 이와 관련하여 정서 지능의 효과를 개인의 인성과 품성에 따라 해석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본 연구의 결과 중 10년 이상의 높은 경력 수준 집단이 자기정서인식에 창의성과 감수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대해 정서인식 능력이 정서 하나 하나의 상태를 확인해 가는 심리적 과정으로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이고 자신의 정서를 올바르게 인식함으로써 어떤 과제에 대한 일처리나 결정에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것은 자신에게 부여된 과제에 대한 결정과 요구를 명확하게 인식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김송자, 2002). 따라서 경력이 높은 집단은 다양한 정서 중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 창의성과 감수성에 의해 발달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창의성과 감수성이 증가할수록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발달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집단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집단과 비교하여 자신의 정서보다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데 인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용 전공의 경력이 낮을수록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는 것보다 타인의 정서에 이입하여 학습을 하는 태도가 인내를 통해 발달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은 타인을 이해하는데 인내가 필요하고 이러한 인내는 공감능력의 증진을 가져오고 결국 타인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서미숙, 2006)

그러므로 무용 전공자들의 정서 지능은 품성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는 가설을 일부 입증하였다. 무용 전공의 경력이 증가할수록 품성이 발달하고 품성의 발달은 정서지능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입증하였으며, 무용 전공 경력에 따라 무용 품성이 무용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도 다른 과정으로 설명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무용 전공자들의 무용 품성이 무용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경력에 따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에 215명의 무용 전공자를 표집 하여 무용 품성과 무용 정서 지능을 알아보았으며, 자료 분석에 기초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연구절차에서 나타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무용 품성 척도와 무용 정서 지능 척도는 본 연구에서 사용 가능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척도가 본 연구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변수를 생성하여 무용 전공 경력에 따른 무용 품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무용 경력이 높을수록 인내와 창의성, 감수성 품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무용 정서 지능 요인 중 자기정서인식 요인에서 높은 무용 전공 경력 집단이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 학습을 하는데 있어 발달적 차이가 품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서론에서 설정했던 가설이 검증되었다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기초로 경력에 따른 무용 품성과 무용 정서 지능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높은 경력 집단은 인내와 감수성이 자기정서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년에서 10년 사이의 경력을 가진 집단은 정서활용과 정서표현에 인내와 창의성이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집단은 타인정서인식에서 인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력에 따라 무용 품성이 무용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력이 증가할수록 정서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품성의 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무용 학습이 품성을 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정서적 지능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내용과 결과에서의 부족함을 기초로 후속 연구에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에서 제시된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에 대한 품성과 정서지능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 후속 연구에서는 새로운 표집 대상으로 무용 전공에 따른 품성과 정서지능의 차이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논의에서도 적시되었다시피 경력에 따른 무용 정서 지능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경력 산정을 보다 면밀하게 급간을 적게 설정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품성이 정서 지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 할 때 실제 무용 수행을 예측할 수 있는지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강선보, 박의수, 김귀성, 송순재, 정윤경, 김영래, 고미숙(2008). 21세기 인성교육의 방향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 연구. *교육문제 연구*, 30, 1-38.
- 고문수(2013).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체육 품성 교육의 이해. *교육논총*, 33, 211-226.
- 공연희(2002). 민속무용이 체력과 인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김미선(2015). 품성교육을 적용한 성격적 상담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개신대학원대학교
- 김승자(2002). 부모의 양육태도 및 정서표현성과 자녀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김숙자(2007). 품성개발 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성 및 자기 통제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김영선(2001). 창작무용학습 경험이 초등학교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희숙(2010). 무용과 정서 지능 관계 탐색.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1(2), 1-22.
- 류가연(2013). 무용수의 정서 지능이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무용역사기록학*, 28, 41-63
- 민홍근(2019). 유소년 축구클럽 활동을 통한 스포츠품성과 리더십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박리나(2014). 부모와 교사가 지각한 유아품성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박성민(2009). 품성개발 집단상담이 시설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소영(2010). 아동의 무용 정서 지능 검사를 위한 척도 개발.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배은주, 유병인, 이경훈(2000). 무용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감성지능 비교 연구.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8(2), 83-103.
- 서미숙(2006). 정서지능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정서지능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소수연, 성벼리, 문소희(2015). 초등학생 품성교육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1(4), 425-449.
- 신유진(2012). 무용전공자의 정서 지능과 몰입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성창훈(2006). 건강운동 실천을 위한 개인과 집단차원의 심리적 증재전략 개발 및 상대적 효과 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 17(2), 127-145.
- 엄혁주(2012). 스포츠 품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엄혁주, 성창훈(2012). 발달적 스포츠 품성의 개념화 및 측정 모형 개발. 한국체육학회지, 51(6), 141-152.
- 엄혁주, 최영준, 문익수(2013). 스포츠 품성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4(1), 81-95.
- 오경란(2020). 태권도 수련 품성과 라이프 스킬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오보선, 유진(2011). 무용 정서 지능이 웰빙과 무용연습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0(4), 347-355.
- 유진, 오보선(2009). 무용 정서 지능 측정도구 개발. 대한무용학회, 60, 224-234.
- 이경남(2019). 어린이집 조직건강과 부모-교사 협력관계 및 보육효능감이 영어교사의 민감성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학회, 11(3), 65-84.
- 이동숙, 최현주(2018). 공연정서에 대응하는 정서지능의 역할 탐색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7(6), 831-844.
- 이동숙, 최현주(2019). 발달적 차이를 기반으로 하는 무용 정서지능과 무용 열정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8(3), 511-523.
- 이동숙(2020). 무용전공자의 정서 지능과 몰입의 관계에서 조절 초점의 매개 역할 검증. 한국무용과학회지, 37(1), 37-52.
- 이미숙(2008). 품성개발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정서지능 및 학습몰입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서훈(2009). 무용교육이 여고생의 사회성 및 정서 지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선영(2014). 무용수행을 통한 예술적 품성의 개념화 및 측정모형 개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선영(2015). 무용전공고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중요 품성요인 탐색.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6(4), 157-173.
- 이정의(2008). 품성개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현옥(2005). 중학교 인성교육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희자(2000). 무용과 정서 지능의 하위요인별 분석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1(1), 125-138.
- 조은지(2017). 중학생 인성 강화를 위한 미디어 활용 무용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 최덕목(2013). 테니스 학생선수의 스포츠 품성과 운동정서, 운동수행 만족 분석을 통한 향후 정책방향. 한국체육정책학회지, 27, 105-118.
- 허진영, 권형수(2009). 무용전공 대학생의 감성지능과 자아실현과의 관계 이해. 대한무용학회논문집, 58(58), 315-335.
- 홍석영(2013). 인성 개념 및 인성의 교육 가능성에 대한 고찰. 중등교육연구, 25, 183-198.
- Seligman, M. E. P.(2002).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Free Press, 김인자 역(2009). 긍정 심리학. 서울: 물푸레
- Goleman, D(1995). Emotion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Green, S. B., & Thompson, M. S. (2003).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clinical research. In M. C. Roberts & S. S. Illardi (Eds.), *Methods of research in clinical psychology: A handbook* 138-175. London: Blackwell.
- Park, N., Peterson, C., & Seligman, M. E.(2004). Strengths of character and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5), 603-619.

## 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Dance Character and Emotion  
according to the Career of a Dance major**

Dongsook Lee\* Sejo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 of dance character on dance emotion according to the career of a dance major. In response, 215 subjects of Korean dance, ballet, and modern dance majors were selected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to measure dance characteristics and on-time intelligence. Therefore, the results were calculated based on data analysis based on the data obtained herein. The analysis confirmed that subjects with more than 10 years of dance experience have high patience, creativity and sensitivity, and that self-consciousness among dance emotional intelligence factors is highly perceived. It also showed that patience and sensitivity affect self-emotional awareness in groups with more than 10 years of experience, while those with five to 10 years of experience influence patience and creativity in emotional utilization and emotional expression, respectively. Finally, groups with less than five years of experience were found to have patience in other people's emotional recognition, with different effects of dance character on dance emotion intelligence depending on their career. These results are believed to be the result of the expectation that dance can develop human character and thus guarantee emotional utilization.

**Key words** : dance major, career, dance character, dance emotion

논문투고일: 2020.05.12

논문심사일: 2020.07.09

심사완료일: 2020.07.16

---

\* Professor, Center for Future Education, Sejong University